

2022 NEAR 실무위원회 9월 울산서 개최 보도자료(7.20) 스크랩

2022.08.01.(월)

번호	구분	매체명	제목	비고
1	TV	울산 KBS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준비 본격화	
2	신문	연합뉴스	울산서 6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9월 개최	
3	신문	울산매일신문	울산서 6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9월 개최	
4	인터넷	파이낸셜뉴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오는 9월 울산서 개최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준비 본격화

입력 2022-07-21 08:01:29 수정 2022-07-21 08:36:09

뉴스광장(울산)



울산시는 오는 9월 울산에서 열리는 '동북아시아 지역자치단체연합 제13차 실무위원회' 개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행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본회의와 부대 행사 진행, 현지 시찰,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는 오는 9월 20일부터 사흘동안 열리며 동북아시아 6개국 79개 회원단체의 국장급 간부가 협력 증진과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공웅조 기자의 기사 모음

울산서 6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9월 개최

송고시간 | 2022-07-20 07:27

| 온오프라인 병행 진행...안효대 경제부시장 주재로 행사 용역 착수보고회



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9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실무위원회' 성공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안효대 경제부시장 주재로 실무위원회 행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한다.

보고회에서는 시 관련 부서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와 부대 행사 진행, 현지 시찰,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주요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행사 관

계자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안 부시장은 "국제 정세와 국가별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사무국과 협조해 많은 회원단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는 동북아시아 6개국 79개 회원단체의 국장급 간부가 모여 우호 협력 증진과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제13차 실무위원회는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인 울산시가 주최하는 행사로, 79개 회원단체와 국가별 주부산 총영사 등이 참석한다.

행사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yongta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7/20 07:27 송고

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C) Yonhapnews. All rights reserved.

울산서 6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9월 개최

조혜정 기자 승인 2022.07.20 13:20



울산시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안효대 경제부시장 주재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 행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울산서 6개국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9월 개최

온오프라인 병행 진행...안효대 경제부시장 주재로 행사 용역 착수보고회

울산시는 9월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 제13차 실무위원회' 성공 개최를 위해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시는 이날 안효대 경제부시장 주재로 실무위원회 행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시 관련 부서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와 부대 행사 진행, 현지 시찰,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주요 추진 계획을 검토하고, 행사 관계자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부시장은 "국제 정세와 국가별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사무국과 협조해 많은 회원단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는 동북아시아 6개국 79개 회원단체의 국장급 간부가 모여 우호 협력 증진과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제13차 실무위원회는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인 울산시가 주최하는 행사로, 79개 회원단체와 국가별 주부산 총영사 등이 참석한다.

행사는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조혜정기자 jhj74@iusm.co.kr

<저작권자 © 울산매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 문의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 오는 9월 울산서 개최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2.07.20 08:41 수정 : 2022.07.20 08:41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베트남

동북아시아 6개국 79개 회원단체 국장급 간부 집결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연합(NEAR) 제13차 실무위원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본격적인 행사 준비가 시작됐다.

울산시는 20일 오후 3시 안효대 경제부시장 주재로 '제13차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 연합 실무위원회 행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실무위원회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베트남 등 동북아시아 6개국 79개 회원단체의 국장급 간부가 모여, 회원 단체간 우호 협력 증진 및 상생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특히 이번 '제13차 실무위원회'는 제14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의장인 울산시가 주최하는 행사로 79개 회원단체 및 국가별 주부산총영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9월 20일~22일 3일간 유에코(UECO)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는 울산시 관련부서와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 사무국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 및 부대행사 진행, 현지시찰,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주요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행사 관계자간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효대 부시장은 "우크라이나사태 등 국제정세와 국가별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제13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사무국과 협조해 많은 회원단체가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북아시아지역자치단체연합(NEAR)은 지난 1996년 9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개국 29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주도해 창설한 국제기구이다. 동북아시아지역 광역자치단체간 행정.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는 6개국 79개 자치단체로 확대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취소